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틱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호랑이들 오늘 '황금장갑 잔치'

로페즈·김상현·최희섭·김상훈 4명 유력
안치홍·이현곤·김원섭 등도 주인공 기대

2009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프로야구 골든 글러브 시상식을 화려하게 밝힌다.

11일 오후 5시1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황금장갑'의 주인공 9명이 가려진다.

KIA는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차영화(2루수)·김준환(외야수) 두 명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한 후 해마다 그 인연을 이어왔다. 1991년에는 무려 6명이 동시에 시상대에 오르며 삼성(2004년)과 함께 한 팀 최다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다.

KIA는 이대진(투수)·홍현우(3루수)·이종범(유격수)·박재용(지명타자) 4명이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던 1997년까지 46개의 황금장갑을 쓸어담았다.

하지만 2002년 김종국(2루수)·이종범(외야수)이 골든글러브를 들어올리기까지 4년간 KIA의 골든글러브 명맥이 끊겼다. 2003년 홍세완(유격수)·이종범(외야수)이 그 명맥을 이었지만 이후 KIA의 골든글러브 암흑기가 계속됐다. 최근 5년간 이용규(2006년·외야수) 홀로 '황금장갑'을 꼈다.

2009년 골든글러브 시상식의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KIA에게로 쏠릴 전망이다.

정규시즌·한국시리즈 우승으로 '명가재건'의 첫걸음을 뗀 KIA는 이번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가장 많은 7명의 후보를 내세우고 영광재현에 나선다. 강력한 수상후보도 4명에 달한다. 로페즈(투수)·김상훈(포수)·최희섭(1루수)·김상현(3루수)의 수상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이현곤(유격수)·김원섭(외야수)·안치홍(2루수)도 프로야구 큰 잔치에 당당히 초대를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프로야구 스타들을 위한 레드카펫과 인터뷰존이 마련됐고, 중계방송사인 SBS에서는 오후 5시15분부터 70분간 현장을 생중계한다.

레드카펫에 오르기 전 선수들은 전문 뷰티숍에서 헤어스타일링과 메이크업을 받고 기아 자동차의 신형 고급 세단인 K7을 통해 시상식장으로 이동하는 등 화려한 시상식을 예고한다.

카라 등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과 함께 현영·채민서·한채아 등 인기 연예인들이 공동 시상자로 나서 축제 분위기를 더하게 된다. 지명타자 후보에 오른 롯데 홍성흔은 가수 비의 '레이니즘'에 맞춰 댄스 공연을 펼친다.

한편 이날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선정된 선수들은 야구용품 브랜드 ZETT에서 제공하는 선수용 글러브 등 10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과 나이키에서 준비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받는다. 최다 득표의 영예를 안은 선수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CJ 상품권이 주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상현 최우수 선수상

KIA 14일 신양파크호텔서 납회식

최고의 한 해를 보낸 KIA 타이거즈가 구단 납회식을 개최한다.

KIA는 14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구단 임직원 및 선수단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2009년도를 정리하는 구단 납회식을 갖는다.

이날 납회식에는 2009시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등 식전행사가 진행되고 서영종 대표이사, 조범현 감독, 김상훈 주장이 대표로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자체 시상식과 사진 전시회도 열린다.

정규시즌 MVP의 주인공인 김상현은 2009년도 최우수 선수상을 받는다. 최희섭은 우수타자상, 양현종은 우수투수상을 수상한다. 이강철 투수 코치는 우수지도자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보팀의 이석범 대리는 우수사원상을 받는다.

한국시리즈 MVP 나지완은 '올해의 포토제닉'에 선정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새로운 기록을 향해…

10일 홍콩 첸관오 경기장에서 열린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육상 남자 200m 예선에서 한국 여호수아(오른쪽)가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손연희 맹활약… 볼링 女 3인조 金

홍콩 동아시안게임… 남자 3인조도 우승

한국 볼링이 제5회 홍콩동아시안게임에서 '효자 종목'으로 떠올랐다.

한국은 10일 홍콩 국제무역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엿새째 볼링 3인조 경기에서 남녀 모두 금,은메달을 휩쓸었다.

여자부 3인조에 출전한 황선옥(충북도청)-손연희(텔룩스)-전은희(한국체대)는 합계 4천44점(에버리지 674.0)을 기록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7일 개인전에서 우승했던 황선옥은 이번 대회 한국선수단에서 첫 2관왕에 올랐다.

또 강혜은-계민영(이상 텔룩스)-신보현(한국체대)은 3천970점(에버리지 661.7)을 쳐 2위에 올랐다.

남자부 3인조에서는 김태영(부산시청)-김재훈(인천교통공사)-홍해솔(한국체대)은 4천139점(에버리지 689.8)으로 1위에 올랐고 장동철(경북도청)-최기봉(대전시청)-서상천(제천시청)은 4천109점(에버리지 684.8)으로 2위가 됐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수확한 볼링은 태권도(13개)도 이어 두번째로 금메달을 많이 딴 종목이 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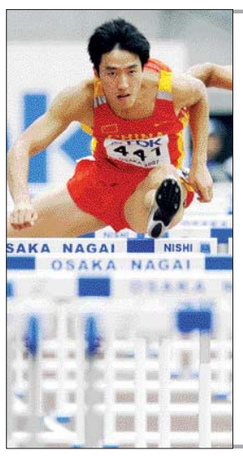
대한항공이 10일 신지애〈왼쪽〉와 후원협약식을 했다.

신지애 1년 더 1등석

대한항공 후원 협약

대한항공이 올해 LPGA 진출 첫해 신인왕과 상금왕, 다승왕 등 3관왕을 차지한 '골프 지존' 신지애를 1년 더 지원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10일 오전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후원 협약식을 열고 신지애에게 향후 1년 동안 퍼스크 클래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 연장에 따라 신지애는 2010년 11월까지 대회 참가를 위해 대한항공을 이용할 경우 퍼스트 클래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또 부모와 코치에게는 연간 12회에 한 해 비즈니스석이 제공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에도 신지애와 같은 내용의 후원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스포츠와 문화 예술, 사회봉사, 학술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인사들을 후원하는 '엑셀런스 프로그램' 운영하며, 신지애 외에도 이승엽, 김연아, 나상욱, 박태환 등의 항공권도 후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육상스타 류샹 출전 앞두고 관심집중

홍콩도착에 언론 상세히 보도

중국이 자랑하는 육상 스타 류샹(26·사진)의 동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두고 홍콩 전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의 주요 일간 신문들은 10일 류샹의 홍콩 도착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며 이번 대회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로 예상했다. 류샹은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통해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항에 도착한 류샹은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은 채 곧바로 숙소로 이동했다.

대신 류샹을 지도하고 있는 순하이펑 코치가 "류샹의 몸상태는 좋은 편이다. 우리는 금메달을 확신한다"고 간단한 입장을 전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110m허들 금메달리스트인 류샹은 지난해 안방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때 오른발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 출발 직전 기권해 중국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110m 허들 경기는 11일 홍콩 청관오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며 류샹을 견제할 후보로는 한국의 박태경(경찰대학)이 유일하게 꼽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야구 亞대회 金프로젝트 시동

사령탑에 조범현 감독

한국 야구가 내년 11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다는 목표로 연말부터 바삐 움직인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는 최근 대한체육회로부터 엔트리 제출 등과 관련한 아시안게임 요강을 전해 받고 대표팀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대표팀 사령탑으로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를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으로 이끈 조범현 감독이 자동 선임됐다. 이는 KBO가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차후 국가대표팀 감독은 전년도 한국시리즈 우승팀 감독이 맡는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KBO는 내년 1월 KIA가 전지훈련을 떠나기 전까지 조 감독에게 선수 선발 계획과 지원스태프 등 대표팀 구성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알려줄 계획이다. 데이터 분석에 일가견이 있는 조 감독은 일본과 대만 등 라이벌 국가의 전력을 치밀하게 분석해줄 것을 KBO에 요청할 방침이다.

1차 엔트리 60명을 뽑는 마감일은 2010년 7월 말까지이고 최종 엔트리 22명은 대회 직전 결정하면 된다. KBO 기술위원회와 야구협회는 내년 1월 초 회의를 열어 선수 선발 원칙을 정한다. KBO가 일찍부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건 단순한 국제 경기가 아닌 한국야구의 10년을 좌우할 대회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역 미필자로 태극 마크에 도전할 만한 선수로는 투수 송은범(SK) 양현종(KIA) 임태훈 이용찬(이상 두산)과 내야수 강정호 황재균(이상 히어로즈) 등 제법 많다. /연합뉴스